내일을 봅니다

SBS 사보
www.sbs.co.kr

제1008호 | 2014년 7월 10일(목) | 발행 SBS 편집 PR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286, 3304 팩스 02)2113-3299 | @SBSNOW

드라마 왕좌 계승! SBS 신작 라인업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남자에게 다가온 매혹적인 제안
월화드라마 〈유혹〉

티저 비하인드 컷 공개, 몽환적이고 미묘한 분위기로 눈길

7월 14일(월)부터 〈닥터 이방인〉 후속으로 방송될 새 월화드라마 〈유혹〉(극본: 한지훈 연출: 박영수)이 본격적인 촬영에 이어 주연배우 권상우, 최지우의 티저 비하인드 컷을 공개하였다.

〈야왕〉에서 순애보와 부성애, 강렬한 복수심까지 폭넓은 감정 연기로 호평을 받았던 권상우는 〈유혹〉에서 소년 같은 감수성의 휴머니스트 차석훈 역을 맡았고, 〈수상한 가정부〉를 통해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한 최지우는 워커홀릭이며 인정보다 손익계산이 앞서는 유세영 역을 맡았다. 2003년 방송된 〈천국의 계단〉 이후 11년 만에 〈유혹〉에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 권상우와 최지우는 티저 촬영 시 베테랑 배우답게 극중 배역인 차석훈과 유세영의 미묘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권상우와 최지우 외에 박하선, 이정진 등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월화드라마 〈유혹〉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제안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네 남녀의 예측불허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14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추리소설작가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틱멘탈클리닉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톱스타와 명품 제작진이 선사할 이색적인 사랑이야기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이어서 방송되는 새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극본: 노희경 연출: 김규태)는 조인성과 공효진의 만남,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통해서 명불허전의 연기로 열렬한 호응 속에 브라운관으로 복귀한 조인성이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강박증이 있는 추리소설작가 장재열 역을 맡아, 다시 한 번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감독과 함께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주군의 태양〉에서 특유의 코믹하고 개성 있는 연기로 '공블리'라는 애칭에 걸맞는 호연을 펼치며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한 공효진이 대학병원 정신과 펠로우 1년차인 지해수 역으로 돌아온다. 노희경 작가가 그려갈 색다른 장르 '로맨틱멘탈클리닉' 〈괜찮아, 사랑이야〉는 7월 23일(수)부터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상류사회의 위선에 맞서는 이들의 진정한 사랑 찾기
아침드라마 〈청담동스캔들〉

화려하지만 비밀스러운 느낌의 포스터와 티저로 주목

〈나만의 당신〉 후속으로 7월 21일(월)부터 방송될 새 아침드라마 〈청담동스캔들〉(극본: 김지은 연출: 정효)은 부와 명성의 상징인 청담동의 한 재벌가를 배경으로 자신의 욕망을 감춘 인물들이 꾸미는 음모와 상류사회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한편, 위선으로 가득한 집안을 박차고 나와 험난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홀로서기를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청자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최정윤, 강성민, 이중문, 임성언, 서은채 등 주연 배우들이 참여한 〈청담동스캔들〉 포스터와 예고 촬영 현장은 드라마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려하면서도 비밀을 간직한 상류사회의 분위기를 세련되게 표현하며 기대를 높였다.

SBS 아침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갈 〈청담동스캔들〉은 21일(월) 아침 8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INDEX ▶▶▶ 01 SBS 새 드라마 02 프로그램 소식 03 사우기고 04 사내 · 그룹소식 05 사회공헌활동 06 공연 · 전시

〈매직아이〉 7월 8일(화) 첫 방송

이효리, 문소리, 홍진경! 핫한 여성들의 업그레이드 토크쇼

지난 5월 13일(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던 〈매직아이〉가 숱한 화제를 일으키며 7월 8일(화) 정규 프로그램으로 첫 시작을 알렸다. 이효리, 문소리, 홍진경 등 연예계에서 뚜렷한 주관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세 여성이 진행하는 〈매직아이〉는 과감하고 솔직한 토크와 신선한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7월 2일(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작발표회 개최

방송에 앞서 지난 2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매직아이〉 제작발표회는 많은 기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효리, 문소리, 홍진경과 함께 남남 케미로 화제가 된 코너를 이끌어갈 김구라가 참석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좀 더 새롭게 보완된 〈매직아이〉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의 유쾌한 소감으로 폭소를 자아내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참신하고 화끈한 토크, 심야 예능의 활력소로

8일(화) 첫 방송된 〈매직 아이〉는 뉴스를 통해 애매모호한 것들의 선을 정해보는 '선정 뉴스'와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은 김구라 · 배성재의 출장 인터뷰쇼 '숨은 얘기 찾기'로 사회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속시원한 토크를 펼쳐 큰 공감과 재미를 주었다.

출연소감 말말말

이효리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아 긴장했는데, 문소리 · 홍진경씨가 편안하게 해줘서 즐겁게 녹화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의미와 재미를 모두 담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소리

"영화가 아닌 새로운 장르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직도 떨리고 어색하다. 어떤 분야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겠다. 현장에서 느꼈던 재미와 유익함이 시청자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홍진경

"몇 년 간 사업과 라디오 진행만 하다가 〈매직아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합류해 감회가 새롭고 신인으로 돌아간 듯하다. 시청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김구라

"저는 '숨은 얘기 찾기'를 통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릴 수 있어 즐겁다. 〈매직아이〉의 두 눈이 항상 시청자들이 계신 방향만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글의 법칙 in 인도양〉 7월 11일(금) 첫 방송! 바나나구이 이벤트로 14번째 시즌의 개막을 알리다

세계 각지의 정글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정글의 법칙〉이 인도양에서의 새로운 도전기를 보여준다. 병만족장과 14번째 생존기를 함께 할 부족원들은 김승수, 박휘순, 강지섭, 애프터스쿨의 유이, 틴탑의 니엘, 로열 파이럿츠의 제임스로, 기존 멤버 없이 신입으로만 구성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남자 출연자의 평균 신장이 역대 최장신이고, 운동능력 또한 최강을 자랑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방송 전인 7월 7일(월) 유이, 니엘, 제임스 등 출연진들이 목동 SBS방송센터에서 300명의 시청자를 초대하여, 부족원들이 자주 먹었던 바나나구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만과 6인의 신입 부족원이 보여줄 흥미진진한 생존기 〈정글의 법칙 in 인도양〉은 7월 11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지식나눔콘서트 – 아이러브人〉 시즌5 '나의 재발견' 7월 6일(일) 현경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으로 뜨거운 반응

SBS의 〈지식나눔콘서트 – 아이러브人〉(이하 아이러브人)이 7월 6일(일) 다섯 번째 시즌을 열었다. '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아이러브人〉의 첫 강연자인 현경 교수는 명문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 최초의 아시아 여성 종신교수로 여성과 환경, 그리고 평화 운동가이자 新페미니스트, 신학적 예술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법륜스님이 격찬한 〈미래에서 온 편지〉의 저자이다. '내 안의 여신 그리고 독讀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현경 교수는 밝고 열정적인 진행으로 방청객의 기립 박수를 받을 정도로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높였다.

〈물은 생명이다〉 7월 4일(금) 600회 특집 방송 2001년 '대국민 약속'으로 시작된 사회공헌 환경프로그램

SBS의 서스테이닝 프로그램 〈물은 생명이다〉가 7월 4일(금) 방송 600회를 맞았다. 2001년 1월 12일(금)부터 방송된 〈물은 생명이다〉는 SBS가 광고 없이 10년간 사회공헌 환경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간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자원과 인간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공감을 높였다. 특히 민영방송인 SBS가 '물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14년간 꾸준히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7월 4일(금) 방송된 600회 특집에서는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안양지역의 환경단체인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와 함께 벌였던 안양천 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조명하였고, 선진국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컵 중계 특별 사우 기고

“여기는 SBS 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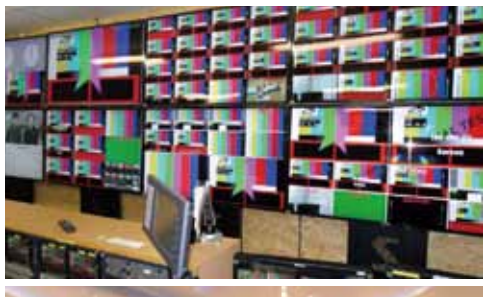
선발대는 석 달 이상 해외 체류
현지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맥가이버가 되어야

대형 스포츠 이벤트 방송이라고 하면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월드컵, 하계 및 동계 아시안게임 중계방송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는 최소 2년 단위로 반복되며 그때마다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해외로 인력과 장비를 보낸 후 현지에서 제작시설을 만들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우리나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SBS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든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방송 등을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고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설치되는 SBS 제작 시설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이번 월드컵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보통 이벤트 시작 전 7~8개월 전에 시작됩니다. 현지 IBC(국제 방송센터)의 SBS 공간에 들어갈 방송시설을 설계하고, 경기 시작 전 3달 전쯤에는 현지에 파견할 엔지니어들로 소위 ‘선발대’를 구성합니다.

선발대는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제작시설을 한국에서 미리 구축 및 시험가동을 해보게 됩니다. 제작 및 중계 시설에 투입되는 방송장비들의 종류가 많은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내에서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못하므로 선발대는 스스로 맥가이버가 되어야만 하고, 그 이유로 평소 맥가이버 기질이 농후한 기술직원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맥가이버 기질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장비 세팅을 모두 마치면 분해를 하여 포장을 한 후 운송업체를 통하여 현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보내는 장비 및 세트 무게가 10톤 이상 되니 그 운송비도 억대에 달합니다. 선발대는 이벤트가 시작되기 40여 일 전에 현지로 가서 제작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지원을 하고 경기가 끝나면 철거까지 담당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브라질 리우(Rio De Janeiro)에 있는 월드컵 중계IBC 내 SBS 제작시설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SBS 제작 시설은 가로 세로 각 15미터 규모이며, 이 안에 스튜디오, OFF-TUBE, MCR(조정실), 기계실, 사무실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 비하면 매우 협소한 크기이지만 장비의 규모는 동계 올림픽과 거의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자나 PD들이 SBS에 있는 것처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술발전 방향에 따라 몇 해 전부터는 PDS와 유사하게 Storage 기반의 제작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교양 파트 등이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우 IBC 내 SBS제작시설로 전송됩니다. IBC내 SBS 제작시설 내에 있는 모든 NLE, 서버,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제스트 → 편집 → 송출 과정이 모두 파일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FIFA MAX 라는 공용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하여 HBS(주관방송사) ENG 기자가 취재한 동영상 클립들도 SBS 제작 시설 내에서 골라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클립은 NLE를 통하여 곧바로 목동 SBS로 송출 하거나 IBC내 SBS 송출 서버로 전송하여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제작 시설 중 올림픽과 좀 다른 점은 축구라는 한 종목에 집중하다 보니, 축구중계에 필요한 CG 장비들이 많이 보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막, 애니메이션 등을 삽입할 수 있는 그래픽 장비인 LYRIC, 국제신호에 포함된 표준 그래픽 외 확장된 경기 분석 내용 등을 그래픽으로 나타내주는 장비인 MAGMA PRO, 축구 경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픽 장비인 LIBERO가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별명이 ‘영원한 리베로’였는데 우연히도 이름이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 이벤트에는 항상 구축하는 무빙CG, TRACER CG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의 또 다른 특징은 4K 방송을 위한 시스템이 포함된 것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최초로 4K UHD방송이 시도됩니다. 현지에서 제작된 4K 콘텐츠를 위성을 통해 전송하면 목동 본사에서 수신하여 신호를 UHDTV용으로 가공한 후에 방송합니다. 저희도 UHD분위기를 내려고 스튜디오 배경으로 여러 대의 곡면 UHD TV 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과수 현지에서 SNG를 통한 이원방송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컴 채널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항상 브로드캐스팅 중인 SBS ON-AIR나 TS-4 오디오(N-1)를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이과수 현지에서도 SBS 본사의 진행을 파악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지 시설을 구축한 인력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서 경기 기간 중 운용을 하는데 투입됩니다. 고속버스를 만든 인력이 남아서 고속버스도 운전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여 구축한 현지 제작시설을 해체하고 나면 집 나온 지 3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서울 돌아가면 팀장님이 사 주실 김치찌개를 생각하며 오늘도 버티는 여기는 SBS BRAZIL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인프라관리팀 진신우 차장대우

사내 소식

'2014년 3분기 조회' 개최

'2014년 3분기 조회'가 7월 1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웅모 SBS사장은 노사가 힘을 모아 지상파 산업의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상반기 작품상 및 2분기 비전실천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작품상 최우수상

–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본부 장태유 차장대우

▶ 작품상 우수상

–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3〉 제작본부 예능1CP소속 박성훈 차장대우, 이양화, 정익승
– 〈신년특집 SBS스페셜 부모vs학부모〉 제작본부 교양4CP소속 박진홍 차장
– 〈이숙영의 러브FM〉 라디오센터 라디오1CP소속 이재익 차장대우
– 〈2014국민의 선택 6.4지방선거〉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팀 임광기 팀장, 권태훈 차장, 이종훈, 김흥수

▶ 작품상 특별상

–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3〉 심사위원 유희열
– 〈런닝맨〉 작가 박현숙
– 〈신년특집 SBS스페셜 부모vs학부모〉 작가 신진주
– 〈별에서 온 그대〉 작가 박지은

▶ 비전실천상

기획실 광고관리팀 이광순 / 편성전략본부SDF사무국 정주연 / 편성전략본부 문화사업팀이영찬 차장 / 제작본부 교양3CP소속 백시원, 도준우, 배정훈 / 드라마본부 드라마2EP소속 박신우 / 보도본부 뉴미디어부 권영인, 하대석 / 경영지원본부 뉴미디어개발팀 류경민 / 라디오센터 라디오지원팀 김영환

〈학교의 눈물〉, 〈상속자들〉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수상

6월 30일(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과 드라마 〈상속자들〉이 각각 사회문화 부문과 한류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학교의 눈물〉은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 · 피해 아이들의 동시 치유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등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진정성 있게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속자들〉은 빈부 격차와 학교 폭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세계에 대한민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여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기획팀 정윤철 부장 정년퇴임식

지난 6월 27일 경영지원본부 기술기획팀 정윤철 부장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정윤철 부장은 1991년 3월 SBS에 입사하여 라디오기술부를 시작으로 기술 전 부문을 거쳐 2011년도 경영지원본부 기술기획팀에 이르기까지, 재직 기간 동안 난시청 해소 및 전파측정업무를 수행하며 매체별 방송망 확충 및 시청자 민원 해소 등을 통해 SBS의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SBS 기구조직 개편

7월 7일(월) 자로 SBS 기구조직이 개편되었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 등 뉴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국이 신설돼 소셜미디어팀, PR팀과 신설된 스마트미디어기획팀이 속하게 되었다.
기존 리스닝센터가 폐지되고 심의팀은 사장 직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프로그램관리 집중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능 4CP가 신설되었다. 8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8뉴스 담당부장을 선임하고, 보도제작부를 폐지하고 기획취재부를 신설하였다.

그룹 소식

SBS Plus 〈메디컬X〉 7월 8일(화) 첫 방송

7월 8일(화)에 첫 방송된 〈메디컬X〉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학계의 불편한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메디컬 인포테인먼트이다. 최근 프리 선언을 한 앵커 박종진을 비롯해 의학박사 남재현, 여에스더, 의학전문기자 신재원, 조동찬, 방송인 조형기, 현영 등이 출연해 병원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환자가 알아야 할 '진짜 정보'를 제공한다. 〈메디컬X〉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SBS 플러스와 SBS funE,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 CNBC를 통해 방송된다.

SBS프리즘타워, 〈밝은 미래〉展 개최

7월 2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SBS프리즘타워 2층 미니갤러리에서 SBS미디어넷이 기획한 〈밝은 미래〉展이 열린다. 'Art'를 통한 소통 WMA(We Meet Ar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밝은 미래〉展은 〈A Midsummer Day's Dream: 한 여름 낮의 꿈〉이라는 부제로, 강민정, 곽은지, 권민정, 권현지, 나선미, 서슬기, 홍해은 등 홍익대학교 대학원의 역량 있는 작가 7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SBS, 세계 최초 월드컵 축구 지상파 UHDTV 생중계 실험방송

세계 최초로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네 배 선명한 화질로 SBS 지상파 UHDTV 실험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SBS는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지상파 UHD 실험방송 채널(53-1번)을 활용하여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우루과이:콜롬비아(6/29(일) 오전 5시), 8강전 프랑스:독일(7/5(토) 오전 1시)에 이어, 결승전(7/14(월) 오전 4시)을 UHD로 생중계한다.
이번 SBS의 월드컵 UHD 생중계 실험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기존에 판매된 UHDTV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LG전자의 경우 무상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였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내외 안테나를 활용해 지상파DTV를 직접 수신하고 있는 가구들은 안테나와 케이블의 변경 없이 그대로 UHDTV만 연결하면 SBS의 UHD 실험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 추가된 SBS UHD 실험방송 채널(53-1번)을 잡을 수 있도록 UHDTV 메뉴에서 "자동채널검색"을 실시해 주면 된다. SBS는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9월 19일(금) 개막되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요 경기들도 지상파UHD 실험방송 채널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기획실 정책팀 이상진 차장대우는 일본의 경우 별도의 수신기가 마련된 일부 공공장소에서만 UHD 녹화 중계를 실시하는 데 비해 SBS의 지상파 UHDTV 생중계는 UHD TV 수상기를 구매한 서울, 수도권 지역 시청자들이 지상파 직접 수신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앞선 디지털 UHD 방송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BS 사회공헌활동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

‘나눔행복 SBS’ 동호회,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2013년 5월에 창립한 ‘나눔행복 SBS’ 동호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이 동호회의 회원은 현재 40여 명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행사

1차 5월 은평 노인복지 야유회 봉사
2차 5월 음성 꽃동네 봉사
3차 7월 갈현동 집수리 봉사
4차 9월 일산 문촌마을 집수리봉사
5차 10월 덕적도 해안쓰레기 수거봉사
6차 11월 직원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7차 12월 저소득층 산타 쌀배달 행사

2014년 행사

1차 2월 저소득 학생초청 방송견학
2차 3월 서울역 노숙인 밥퍼 봉사
3차 4월 홍재동 개미마을 집수리 봉사
4차 5월 인천 계양산 등산을 통한 자연활동
5차 6월 파주 운정역 근처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사우 기고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과 느끼는 게 많은 것이 봉사

‘나눔행복SBS’ 동호회 활동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서 시작한 봉사 활동이 이제는 집수리 봉사를 가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타 부서 동료들이 봉사 한번 하고 나면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처럼 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집수리며 도배며 페인트 칠을 하다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누군가 슈퍼에서 사온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일 때는 그 맛이 참 꿀맛입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며 사랑이고, 동료 간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서로 협동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봉사는 아이들과 손잡고 같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원봉사가 뭔지 그 단어조차도 몰랐는데 아빠가 자원봉사를 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라는 마음가짐은 억지로 가르치려고 해도 힘든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봉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가?”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봉사이며, 같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현재 나의 생활에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봉사에 한발 내디뎌 보시면 상상 그 이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식 동호회 인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나갈 때마다 회원들의 주머니를 각출하다 보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배지, 장판, 페인트, 도구, 식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봉사동아리 운영진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직원이 부담 없이 참석하여 SBS 위상을 살리고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SBS A&T 미술본부 아트2팀 남완주 차장대우

〈정글의 법칙〉,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살리다

2013년 출간된 〈정글의 법칙〉 만화책 수익금이 에티오피아 지역식수 사업에 뜻 깊게 쓰여졌다. 이지원 차장대우(제작본부 예능3CP소속)를 비롯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은 만화책을 출간하여 얻은 수익금 중 제작진과 출연진 몫의 인세 전액을 컴패션을 통해 에티오피아 지역 식수 사업에 후원하였다. 에티오피아 컴패션은 이 돈으로 오염되지 않은 수원지로부터 식수를 끌어오는 파이프 공사를 진행하여 올 4월에 결실을 보았다. 이 시설로 그 동안 오염된 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았던 천여 명의 어린이와 마을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진 속 저수조 앞에는 SBS 〈정글의 법칙〉에서 후원 받았다는 현판도 보인다.

〈별에서 온 그대〉 특별기획전 –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행사 진행

지난 6월 30일(월)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열리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 특별기획전에 초대받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SBS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특별기획전에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고,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

건강칼럼 구구팔팔 건강하게 삽시다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뇌심혈관 질환이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말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발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흡연, 음주,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 요인, 연령(남 55세 이상, 여 65세이상 위험도↑), 가족력, 조급한 성격 등 유전적요인, 고온, 한랭작업, 과도한 업무량,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운전작업 등 작업관련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은 언어장애, 이해력 감소, 일시적으로 한쪽 눈이 어두워짐, 어지럼증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전과 다른 갑작스런 두통 등이 있다.

뇌졸중 식별 방법은 1. 웃게 했을 때 한쪽 입술이 밑으로 처지거나, 2. 눈을 감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축 처질 때, 3. "저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같은 발음하기 힘든 문장을 따라 하게 했을 때 제대로 못 한다면 뇌졸중일 확률이 70%라고 한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은 심한 가슴 통증(가슴이 조이는 느낌, 답답한 느낌)이 30분에서 수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발한,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뇌심혈관 질환 예방 수칙

① **금연** : 흡연자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다.
② **적정 음주량(2잔) 지키기** : 매일 7잔 이상의 음주는 발병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③ **과체중을 주의할 것** : 비만은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④ **주3회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 : 혈액순환과 혈관 탄력이 좋아지며 비만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⑤ **싱겁고 담백한 식단** :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린다.
⑥ **스트레스는 그때 그때 풀기** : 스트레스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인다.
⑦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주시하라** : 40대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한다.
⑧ **만성 질환을 방치하지 말 것**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뇌혈관기형 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유지해야 한다.
⑨ **응급상황 시 3시간 내 병원으로 이송** : 3시간 이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⑩ **한 번 발병했던 환자는 재발 방지에 노력** : 병력이 있는 환자는 5년 내 4명 중 1명이 재발한다.

경영지원본부 노사협력팀 변영옥

NEW BOOK

〈대학교수 13인의 명강의〉

한국교육개발원 편 | 학지사

SBS문화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2년과 2013년 선정한 13개의 강의를 책으로 출간했다. 책 저술에는 보도국 미래부 이창재 부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대학교수 13인의 명강의〉는 13명 교수들의 강의 분석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된 수업, 학생의 질문 역량을 키워 주는 수업, 학생의 사고 역량을 키워 주는 수업 등 9가지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 경조사 소식 |

❁ **축하합니다** 드라마본부 드라마지원팀 이성훈 차장대우 결혼(7월 12일)

공연 · 전시

간송문화전 2부-보화각

기간 : 7월 2일(수)~9월 28일(일)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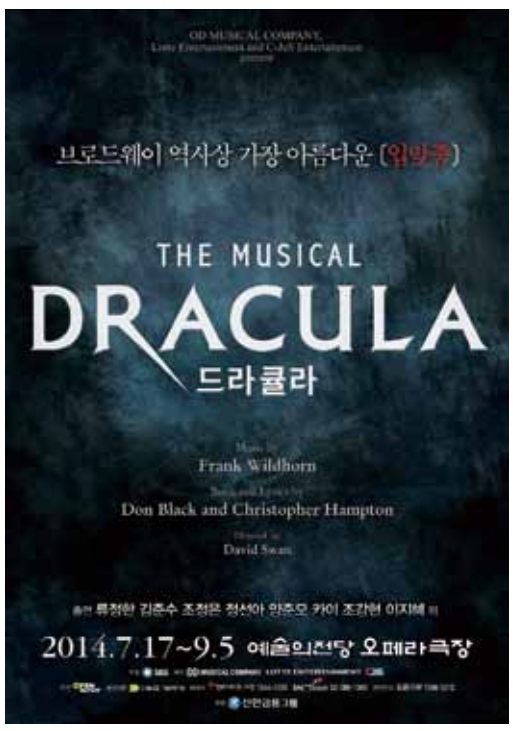
간송미술관의 외부 전시 제 2부가 막을 열었다. 1부 전시에 12만 명이 다녀가는 등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간송문화전〉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앞세워 〈간송문화전 2부-보화각〉 전시를 시작했다. '보화각'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란 뜻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8년에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이자 간송미술관의 전신이다.

1부가 간송이라는 인물과 문화재 수집 일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부 전시에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각 분야 '명품'이 총출동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7세기 금동여래입상 등, 삼국시대부터 19세기를 아우르는 국보 12점과 보물 8점 등 시대별 대표작 114점이 대거 출품되었다.

간송 선생이 수집한 유물 중 백미만을 엄선한 최상의 명품전인 이번 전시는 9월 28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뮤지컬 드라큘라

기간 : 7월 15일(화)~9월 5일(금)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천 년의 세월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가 온다. 국내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내 초연을 하는 뮤지컬 〈드라큘라〉는 프로듀서 신춘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연출 데이비드 스완, 음악감독 원미솔 등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만든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다시 뭉쳐, 또 한 번의 영광을 재현한다. 프랭크와일드혼의 감미롭고도 웅장한 선율에 어우러지는 데이비드 스완의 다이나믹한 전개 외에 화려한 무대와 의상, 섬세한 조명, 역동적인 무브먼트는 드라큘라 백작의 사랑을 더욱 극적으로 전달한다. 드라큘라 역은 류정한, 김준수, 미나 역은 조정은, 정선아, 반헬싱 역은 양준모, 조나단 역은 카이가 맡아 드라큘라 백작의 매혹적인 비극을 가장 돋보이는 형태로 관객들에게 선사한다.